

일부지역 대학생들의 구강보건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형록*, 오한나**,
광주보건대학교 치기공과, 원광보건대학교 치위생과**

Influential factors for the oral health awareness of college students

Hyeong-rok Noh*, Han-Na Oh**

Dept.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Gwangju Health University*

Dept. of Dental Hygiene,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구강보건인식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구강보건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그 요인들을 바탕으로 대학생에게 맞는 구강보건프로그램을 계획하고자 연구되었다. 광주광역시 소재한 2개 대학의 학생 394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도는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있는 사람이 높았으며($p<0.05$), 구강보건교육에 관한 인식은 보건 계열에서 가장 높았다($p<0.05$). 구강병 예방에 관한 인식은 구강보건교육의 경험이 있을 경우 높았다($p<0.05$). 자아존중감과 구강보건인식과의 관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구강보건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감,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구강보건교육이 구강보건인식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상의 결과에서 구강보건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구강보건인식, 대학생, 영향요인, 자아존중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esteem and oral health awareness of college students and influential factors for their oral health awareness in an effort to plan an oral health program tailored to college student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394 students who were in G college and J university in the city of Gwangju, on whom a self-administered survey was conducted. After a survey was conduct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Regarding oral health awareness by general characteristics, the students who had experience of receiving oral health education were better in that regard($p<0.05$). As to awareness of oral health education, the health-related majors took the best view of it ($p<0.05$). Concerning the links between self-esteem and oral health awareness,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As a result of analyzing what factors affected oral health awareness, oral health awareness was under the significant influence of self-esteem, self-rated oral health status and oral health education($p<0.05$). Given the findings of the study, oral health education programs geared toward college students should be developed in consideration of the various influential factors for oral health awareness to offer better education.

Key Words : College students, Influential factors, Oral health awareness, Self-esteem

* 본 논문은 2014년 원광보건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Received 26 June 2014, Revised 31 July 2014

Accepted 20 August 2014

Corresponding Author: Han-Na Oh(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Email: ohn326@wu.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20세기 이후에 건강의 개념이 생활개념으로 변화하면서 구강건강의 개념 또한 구강병에 이환되어 있지 않고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생활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 구강조직 기관의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평생 건강한 구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강보건의 수준을 향상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구강건강향상을 위해서 구강보건실태를 파악한 후 각 개인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 지식 태도 및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구강보건인식을 향상시켜야 하며[1], 정기적인 예방치치와 자기관리 등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자 스스로가 구강건강상태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 각 대상자의 구강건강수준을 고려하여 대상자 집단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지시적이고 보호적인 환경 속에서 생활하다가 대학에 진학하면 갑자기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환경에 노출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건전한 문화나 건강증진을 습득하기 보다는 음주, 흡연, 불규칙한 생활습관들에 익숙해진다[2]. 정 등[3]은 대학생은 인구특성상 큰 집단에 속하고 구강진료이용의 주체자이자 의존자라고 하였으며, 추후 구강보건행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대학생들의 구강보건행태 분석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대학생들이 자신의 구강건강상태에 대하여 정확히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정기적인 구강검진, 구강건강 및 각 개인의 구강상태에 따른 적절한 개인별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하다[4]. 따라서 대학생들로 하여금 바람직한 구강관리 습관 형성이 현재의 건강 뿐 아니라 중년이후의 구강건강을 좌우한다는 인식과 자신의 구강건강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고 인정을 받고자하며,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기 원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5]. 또 자신에 대한 평가로 건강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6]. Grzywacz와 Marks[7]도 인지·지각적 요인 중 자아존중감은 건강증진 행위를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라고 하였다. 윤[8]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군이 낮은 군에 비해 건강증진 행위, 건강지각 등이 높다고 하였고, 구강건강영역에서는 이의 연구[9]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스스로에 대한 존중

감, 효능감, 만족감이 높아져 구강건강에 많은 관심과 신경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류 등[10]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AMPQ, 삶의 만족도에 따른 구강건강 지식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구강건강 지식과 자아존중감은 양의 상관관계로 연관성이 높다고 하였으며, 민과 도[11]는 구강건강상태가 건강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구강보건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자아존중감과 구강보건인식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구강보건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그 요인들을 바탕으로 한 대학생에게 맞는 구강보건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구강보건을 합리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편의표본추출법에 의해 선정된 광주광역시 에 위치한 J대학과 G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총 48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2013년 9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1개월간 진행되었다. 이 중 441부를 회수하여 설문응답이 불충분한 46부를 제외하고 394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조사목적과 작성법을 설명하고 이에 응한 사람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직접 나누어준 다음 자기 기입식으로 작성한 후 수거 하였다.

2.2 연구방법

연구도구는 일반적인 특성 4문항,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3문항과 구강보건인식에 관한 문항은 조[12]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17문항으로 구강보건교육인식에 관한 7문항, 올바른 잇솔질인식에 관한 6문항, 구강병 예방인식에 관한 4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각 문항에 대해 매우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매우그렇지 않다 1점으로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보건인식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인식도에 사용된 도구 항목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773이었다.

자아존중감에 관한 문항은 Rosenberg가 개발하고 전

[13]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긍정적인 문항 5문항과 부정적인 문항 5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구강보건인식과 마찬가지로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자아존중감에 사용된 도구 항목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48이었다.

2.3 자료분석

통계분석은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구강보건인식은 t-검정 또는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아존중감과 구강보건인식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고, 구강보건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성적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전체 394명의 학생 중 보건계열이 31%로 가장 많았으며, 공학계열 23.1%, 경영계열 14.5%, 예능계열 13.7%, 자연과학계열 10.2%, 인문계열 7.4%였다. 성별은 남자 46.4%, 여자 53.6%였으며, 2년 이내의 치과방문 횟수는 2~4회가 33.0%로 가장 많았고, 방문경험이 없는 경우가 28.4%, 5회 이상이 25.1%, 1회 방문이 13.5% 순이었다. 구강보건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41.9%였고, 받아보지 못한 학생은 58.1%였다.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	Classification	Person(%)
Department	Collage of humanities	29(7.4)
	Collage of natural sciences	40(10.2)
	Colla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57(14.5)
	Collage of engineering	91(23.1)
	Collage of arts	54(13.7)
	Collage of Health	123(31.2)

Gender	Male	183(46.4)
	Female	211(53.6)
Visit frequency of Dental hospital & clinic within 2years	No	112(28.4)
	1th	53(13.5)
	2~4th	130(33.0)
	5th<	99(25.1)
Experience of oral health education	Yes	165(41.9)
	No	229(58.1)
Total		394(100.0)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도

일반적 특성별 자아존중감과 구강보건인식을 비교분석하였고, 구강보건인식의 세부항목인 구강보건교육, 올바른 잇솔질, 구강병 예방에 관한 인식을 일반적 특성별로 비교분석하였다<Table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경영계열(3.86점)과 공학계열(3.86점)이 가장 높았으며, 학과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성별에서는 남자(3.76점)가 여자(3.63점)보다 더 높았고, 2년 이내의 치과 방문횟수가 2~4회 방문시 자아존중감이 높았다(p<0.05).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올바른 잇솔질에 관한 인식도는 공학계열과 보건계열에서 높았고,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있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구강병예방에 관한 인식 역시 보건계열에서 가장 높았다.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있는 사람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3.3 자아존중감과 구강보건인식의 관계

연구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과 구강보건인식의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Table 3>와 같다. 자아존중감과 구강보건인식은 유의한 양의 상관성이 있었으며(p<0.01), 구강보건교육에 관한 인식, 올바른 잇솔질에 관한 인식, 구강병 예방에 관한 인식도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구강보건인식과 구강보건교육인식, 올바른 잇솔질에 관한 인식, 구강병 예방에 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Self-esteem and oral health awaren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Classification	Self-esteem	p	Oral health awareness	p	Oral health awareness					
						Oral health education	p	Correct tooth brushing	p	Oral disease prevention	p
Department	Collage of humanities	3.72±0.51		3.64±0.38		3.50±0.44		3.83±0.50		3.59±0.63	
	Collage of natural sciences	3.69±0.51		3.55±0.41		3.46±0.48		3.71±0.55		3.49±0.60	
	Colla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3.86±0.59	0.000*	3.68±0.40	0.210	3.64±0.42	0.029*	3.81±0.53	0.839	3.57±0.64	0.761
	Collage of engineering	3.86±0.69		3.76±0.51		3.73±0.58		3.88±0.64		3.61±0.76	
	Collage of arts	3.51±3.50		3.69±0.41		3.63±0.46		3.85±0.50		3.55±0.61	
Gender	Collage of Health	3.56±0.60		3.76±5.87		3.74±0.55		3.88±0.99		3.66±0.72	
	Male	3.76±0.67	0.039*	3.71±0.50	0.996	3.67±0.56	0.774	3.81±0.58	0.338	3.64±0.74	0.262
Visit frequency of Dental hospital & clinic within 2years	Female	3.63±0.55		3.71±0.49		3.65±0.48		3.88±0.83		3.56±0.64	
	No	3.83±0.62		3.69±0.49		3.64±0.52		3.87±0.83		3.51±0.71	
	1th	3.63±0.59	0.001*	3.77±0.56	0.622	3.66±0.54	0.889	3.90±0.37	0.812	3.78±0.61	0.090
Experience of oral health education	2~4th	3.73±0.63		3.73±0.49		3.69±0.52		3.85±0.56		3.63±0.68	
	5th<	3.51±0.54		3.64±0.51		3.64±0.51		3.79±0.73		3.55±0.68	
Experience of oral health education	Yes	3.64±0.62	0.180	3.77±0.47	0.037*	3.71±0.51	0.095	3.90±0.72	0.223	3.69±0.61	0.020*
	No	3.73±0.61		3.67±0.51		3.62±0.52		3.81±0.73		3.53±0.73	

*p<0.05, **p<0.01

<Table 3> Relationship of self-esteem and oral health awareness

	Oral health awareness	Oral health education	Correct brushing	tooth	Oral disease prevention
Self-esteem	0.261**	0.197**	0.276**		0.100*

* p<0.05 ** p<0.01

3.4 구강보건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들의 구강보건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분석 결과 자아존중감,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구강보건교육 3개의 변수에서 유의수준 0.05에서 구강보건인식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5.2%의 설명력을 보여주는 이 모형은 모든 변수에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Factors influencing oral health awareness

Variables	B	β	p	Tolerance	VIF	R ²
Constant	4.013		0.004			
Self-esteem	0.224	0.277	0.000	0.928	1.078	
Self-perceived oral health status	-0.690	-0.118	0.015	0.944	1.059	0.152
Oral health importance	-0.063	-0.083	0.871	0.017	58.341	
Oral health education	-0.180	-0.108	0.024	0.959	1.041	

Dependent variable=oral health awareness, R²=0.152, Adjusted R²=0.137, F=9.910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t α=0.05

4. 고찰 및 제언

구강보건인식은 구강관련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성

이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 증상이나 동통, 건강에 대한 기회와 같은 영역들은 각기 건강 인식의 하위범주 혹은 관련된 요인들로 볼 수 있다[14]. 건강증진 행위의 결정요소로 건강의 중요성 인식과 지각된 건강 상태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15], 인지된 구강보건지식은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증가시키며 이로 인해 행동과 태도의 변화를 가져와 구강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다[16]. 구강건강 수준은 구강건강에 관한 지식, 태도 및 행동을 합리 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향상되고 지식, 태도, 행동의 변화는 교육을 통해서 많이 변화되므로[17], 각 개인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 지식 태도 및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구강보건인식을 향상시켜야 한다[18].

구강보건향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활동은 구강보건교육이지만 학교에서 시행하는 구강보건교육은 대부분 초등학교에 한정되어 이루어지고 있고 대학은 주로 전공위주의 교육이 시행되고 있어 대학생에게는 실질적으로 구강보건교육의 기회조차도 제공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구강보건인식과 구강보건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초기 성인기 구강건강관리 지식전달을 위한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고자 연구하였다.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민과 도[11]의 연구와 임의 연구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나 이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학과별로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인식, 올바른 칫솔질에 대한 인식, 구강병 예방에 대한 인식에 관해 살펴본 결과 모든 인식에서 보건계열 학과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건계열 학과에는 치위생과, 치기공과가 포함되어 있어 다른 학과들에 비해 구강건강에 대해 학습하고 접할 기회가 더 많으며, 이와 박[19] 등의 연구결과에서도 보건계열 학생들의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일반계열 학생들보다 많은 것이 관련성이 클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구강보건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인식도는 모든 인식도에서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더 높았고, 인식도와 구강병 예방에 관한 인식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5$). 이는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이 구강보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구강보건에 관한 지식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최와 황[4]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노의 연구[20]에서도 일부 대학생들의 구강보건인식도와 실천은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므로 구강건강을 증진 유지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매체 및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년 이내 치과방문 횟수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1회 방문과 2~4회 방문에서 높았고 5회 이상 방문은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2년 내에 1회 또는 4회 이하로 치과를 방문한 환자의 경우 정기검진 또는 예방치치 또는 초기의 구강질환을 위해 방문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치과 방문 횟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진행된 구강질환의 치료로 인해 방문횟수가 많아졌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과 구강보건인식과의 상관분석 결과는 자아존중감과 구강보건인식은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으며($p < 0.01$), 구강보건교육, 올바른 잇솔질, 구강병 예방에 관한 인식도도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구강보건인식과 구강보건교육, 올바른 잇솔질, 구강병 예방에 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류 등[10]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지하게 함으로써 구강건강 행위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촉진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구강보건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구강보건교육 3개의 변수에서 구강보건인식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연구[9]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 효능감, 만족감이 높아져 구강건강에 많은 관심과 신경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구강건강도 마찬가지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을 고려한 구강보건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김의 연구[21]에서 구강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인식 및 실천정도는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구강건강

에 대한 관심정도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고, 노의 연구[20]에서도 구강보건인식도는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구강보건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구강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구강건강관리를 습관화 하고 생활양식을 바꾸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대상자 스스로 구강건강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가에 따라 예방처치 및 조기치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대상자가 인식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 각 대상자의 구강건강수준을 고려해야 하므로 지각된 구강건강상태에 따른 대상자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또한 대학생들로 하여금 바람직한 구강관리 습관 형성이 현재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구강건강을 좌우 한다는 인식과 올바른 구강건강에 관한 인식 그리고 자신의 구강건강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대학의 일부 대학생들만 대상으로 실시하여 전체 대학생들에 대한 모집단을 대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조사지역을 보다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구강보건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적합한 구강보건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구강보건인식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구강보건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그 요인을 바탕으로 한 구강보건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2개 대학교의 학생 394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보건계열이 31%로 가장 많았고, 여학생이 53.6%였으며, 2년 이내 치과방

문 횟수는 2~4회가 33%로 가장 많았다. 구강보건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41.9%였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경영계열(3.86)과 공학계열(3.86)이 가장 높았고, 남자(3.76)가 여자(3.63)보다 더 높았으며, 2년 이내의 치과 방문횟수가 2~4회 방문(3.73)한 사람의 자아존중감이 높았다($p < 0.05$).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도는 보건계열(3.76)에서 인식도가 다른 학과보다 높았고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3.77)이 높았다. 구강보건교육에 관한 인식은 보건계열(3.74)에서 가장 높았고,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있을수록(3.71) 높았다. 올바른 잇솔질에 관한 인식도는 공학계열(3.88)과 보건계열(3.88)에서 높았고,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있을수록(3.90) 높게 나타났으며, 구강병 예방에 관한 인식 역시 보건계열(3.6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있는 사람(3.69)이 인식도가 높았다.
4. 자아존중감과 구강보건인식의 상관관계는 전체 구강보건인식($r=0.261$), 구강보건교육인식($r=0.197$), 올바른 잇솔질에 관한 인식($r=0.276$), 구강병 예방에 관한 인식($r=0.100$)에서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구강보건인식과도와 구강보건교육인식, 올바른 잇솔질에 관한 인식, 구강병 예방에 관한 인식이 높았다.
5. 구강보건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감, 주관적구강건강상태, 구강보건교육 3개의 변수에서 유의수준 0.05에서 구강보건인식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자아존중감이 높고,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치과방문횟수가 1회 이상일 경우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 시기에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한 구강보건교육이 대학과 치과 병·의원 등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CKNOWLEDGMENTS

This paper was supported by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in 2014.

REFERENCES

- [1] Seol-Kyung Song,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attitude of oral health in Korean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2004.
- [2] M. Y. Chon, M. H. Kim, C. M. Cho, Predictors of health promoting lifestyles in Korean undergraduat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 19 No. 2, pp. 1-13, 2002.
- [3] G. C. Jeong, H. S. Lee, S. N. Kim. A study on the dental services utilization by application of the Andersen model in students of some Korean universit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Vol. 27 No. 3, pp. 357-373, 2003.
- [4] H. S. Cho, S. H. Hwang, Impact of oral health education on the oral health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Health Education*, Vol. 11 No. 1, pp. 7-15, 2010.
- [5] Stuart, G. W. S. J. Sundee, Alteration in self concept.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psychological nursing*. St. Louis: C.V. Mosby Co pp. 242-284, 1979.
- [6] Eun-Young Jang,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responses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2001.
- [7] Grzywacz JG, Marks NF, Social inequalities and exercise during adulthood: toward an ec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 42 No. 2, pp. 202-220, 2001.
- [8] H. S. Yoon, The study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nursing college student by the self-esteem.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Health Education*, Vol. 11 No. 2, pp. 115-127, 2010.
- [9] Hye-Kyung Le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regulation in relations between dental fear of adolescents and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Ph.D. dissertation, Wonkwang University. 2012.
- [10] E. M. Yoo, J. S. Yoo, H. J. Han, Relationships among self-esteem, AMPQ and life satisfaction, oral health knowledge and practice in some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 12 No. 4, pp. 422-428, 2012.
- [11] K. J. Min, J. A. Do, The influence of oral health impact profile (OHIP) on self-esteem of patients during orthodontic treat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0 No. 7, pp. 1773-1778, 2009.
- [12] Suk-Sung Cho, Recognition on oral health and its care by workers in enterprising place.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2000.
- [13] B. J. Jeon,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Journal of Theology*. Vol. 11 No. 1, pp. 107-130, 1974.
- [14] Young-Nam Kim, The related factors of perceived oral health in Korean adults. Ph.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2004.
- [15] Christiansen KE, The Determinate of health promoting behavior. Ph.D. dissertation College of Nursing University, 1981.
- [16] Y. J. Jang, J. A. Jung, E. S. Jeon, Relation factors of oral health behavior of junior college in Jeollanamdo. *Journal of Korean Acad Dental Hygiene Education*. Vol. 6 No. 4, pp. 387-402, 2006.
- [17] K. B. Song, D. H. Kim, Y. L. Shin, A study on the oral health knowledge and attitudes of elementary school nursing teachers in Taegu and Kyung-pook province. *Kyung-Pook Journal of dentistry*. Vol. 10 No. 1, pp. 33-45, 1993.
- [18] Ji-Young Bae, A study on the factors effecting the oral health concern and oral health care.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2002.
- [19] Seung-Hei Park, Comparison on oral health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in Jeollabuk-do Korea.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2010.
- [20] Sea-In Roh, Recognition for the health of the mouth and behaviors on some of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Daeguhaany University. 2009.

[21] Mi-Jung Kim, Related factors to perception and practice for oral health among patients visiting dental clinics.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2010.

노 형 록(Noh, Hyeong Rok)



- 2013년 8월 :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바이오테크놀로지학과(공학석사)
- 2013년 9월 ~ 현재 : 광주보건대학교 치기공과 겸임교수
- 관심분야 : 치의학, 치과재료
- E-Mail : dentalmania@hanmail.net

오 한 나(Oh, Han Na)



- 2013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치의학과(치의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원광보건대학교 치위생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치의학, 치위생
- E-Mail : ohn326@wu.ac.kr